

땅의 추수

-요한계시록의 신학 일고1)

조병수

(염광교회 목사 신약학)

1. 도입

1983년부터 10년 동안이나 작업한 “개역 개정” 원고는 요한계시록 14장 16절의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는 구절을 전혀 손대지 않은 채²⁾ 개역 개정 감수 위원회로 넘어왔다. 나는 개정 감수 위원회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를 “땅이 거두어지니라”로 교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개정 감수 위원회는 나의 의견을 따라 이 구절을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밑줄 부분은 소문자로 표기되었음)로 개정하였다. 사실상 원문에는 “땅이 거두어지니라(ἐθελισθη ἡ γῆ)”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번역하면 의미를 전달하기에 부족하다 싶어 “곡식이”를 소문자로 첨가하였다. 이렇게 바로 잡을 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한 가지 신학적인 내용이 드러난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우주론 속에 들어 있는 “땅의 신학”이다. 이 글은 요한계시록의 우주론 전체를 살펴 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이 글의 목적은 단지 요한계시록에서 “땅”이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는지를 살펴 보는 것으로 제한된다.

요한계시록은 땅을 시작 부분(1:5)과 거의 마지막 부분(21:24)에서 언급함으로써 어떤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땅이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휘의 빈번한 사용에 의하여

1) 이 글을 1993년 8월 16일부터 1997년 6월 28일까지 4년 동안 매주 토요일과 여러 차례의 집중 감수 합숙 기간으로 157회나 헌신적으로 신실하게 모였던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개정 감수위원회”의 감수위원들, 곧 감수위원장 이상훈 박사를 비롯하여 강성찬, 강홍복, 김영백, 김이근, 김중은, 도한호, 박병진, 박재택, 배제민, 엄현섭, 오택근, 이대용, 최의원 감수위원들께 드린다.

2) 사실 “개역 개정” 원고가 한 가지 손댄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한자 穀食을 한글 “곡식”으로 바꾸도록 제안한 것이다.

도 쉽게 입증된다. 요한계시록에는 “땅”이 모두 82번 사용되었다³⁾. 게다가 땅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까지 포함하면 그 사용 빈도수는 훨씬 더 늘어난다.⁴⁾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이 “땅”이라는 명사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땅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 요한계시록 연구에 있어서 이 문제를 취급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⁵⁾ 이 글은 우선 요한계시록이 땅을 중심으로 어떤 우주론을 전개하는지 개요적으로 고찰하고, 이어서 땅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2. 요한계시록에서 우주론의 개요

요한계시록에는 땅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우주적인 구성 요소가 합성적으로 표현된다. 구성 요소와 관련하여 살펴볼 때 요한계시록의 우주론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식으로 정리된다: 이중적 형식, 삼중적 형식, 사중적 형식.⁶⁾

2.1. 이중적 형식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간단한 우주론의 형식은 하늘과 땅의 이중적인 형식이다. 하늘과 땅은 처음의 것과 나중의 것으로 선명하게 구분된다(21:1). 하늘과 땅은 함께 하나의 실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땅은 분리할 수 없이 하늘에 연결된다.⁷⁾ 땅은 하늘 없이 이해될 수가 없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의 대비체인 땅은 자주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공격 대상으로 묘사된다(12:4; 13:13). 그러나 땅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영광으로 환하게 될 것이다(18:1). 땅은 부정적인 성격과 긍정적인 성격을 나란히 가지고

3) 계 12:16에는 땅이 두 번 사용되었는데, 둘째 것은 사본상 논쟁의 대상이 된다. 특히 P47은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4) Vgl. W.F.Moulton/A.S.Geden/H.K.Moulton, *A Concordance to the Greek Testament*, Edinburgh 1978, 5th ed., 163.

5) 이 문제를 취급한 글들은 이 논문의 끝에 있는 참고문헌을 참조하라.

6) Gegen E.Dinkler, “Weltbild. III. Im NT”, *RGG* (3. Aufl.), 1619. 그는 요한계시록에 단지 두 가지 우주론, 즉 이중적 또는 삼중적인 우주론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Vgl. H.Sasse, “ $\nu\eta$, ἐπιτελειος”, *TWNT* 1, 677. Sasse는 요한계시록 우주론에서 세 가지 형식을 알고 있다.

7) Vgl. Sasse, “ $\nu\eta$, ἐπιτελειος”, 677; Minear, “Cosmology”, 25f.,27.

있다. 하지만 두 가지 성격을 병행적으로 가지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결국 사라지고(20:11; 21:1),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다(21:1).

2.2. 삼중적 형식

요한계시록의 우주론의 삼중적인 형식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로 “하늘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5:3)⁸⁾라는 구조이다. 이것은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4절(“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에 근거하는 표현일 것이다. 그렇다면 “땅 아래”라는 표현은 단순히 바다에 대한 다른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의 두 번째 삼중적인 형식에서 일치성을 보여준다. 둘째 삼중적인 형식은 하늘과 땅과 바다(7:1,2,3; 10:2,5,6,8; 11:6; 12-13장; 특히 12:12)라는 구조이다. 이때 땅은 통일체적인 덩어리로서 바다에 의하여 둘러싸이고 바다 위에 떠 있는 견고한 육지 전체로 파악된다.⁹⁾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이 긍정적으로 이해되는 반면에 땅과 바다는 부정적으로 이해된다(12:12). 땅과 바다는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2.3. 사중적 형식

사중적인 형식도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이다(5:13). 둘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이다(8:7-12; 14:7; 16:2-9).

3. 요한계시록에서 땅의 성격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주 전체를 만드신 분으로 이해된다. 하나님은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10:6)이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14:7)이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찬송의 대상이다(5:13). 따라서 땅은 우주의 다른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8) 이와 비슷한 용례는 빌 2:10에서도 엿보인다.

9) Vgl. Sasse, “*vñ, ἐπιτελειος*”, 677.

은 “하늘의 하나님”(ὁ θεὸς τοῦ οὐρανοῦ, 11:13)이시며, “땅의 주님”(ὁ κύριος τῆς γῆς, 11:4)이다. 이렇게 볼 때 땅의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 의지에 의존하며, 절대적인 시작과 절대적인 종말에 의하여 제한된다.¹⁰⁾ 더 나아가서 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처소이다(16:18).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인간의 거주지인 땅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를 함께 제시한다. 이 두 가지 성격을 살펴 보자.

3.1. 땅의 부정적인 성격

요한계시록은 땅의 부정적인 성격을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한다.

3.1.1. 땅과 사탄

땅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는 무엇보다도 땅이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다는 점에서 보여진다. 첫째로 땅은 하늘에서 내어쫓긴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과 용이 지배한다(12:9,13). 둘째로 땅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들에 의하여 손상을 당한다(9:3-4). 셋째로 “은 땅이 짐승을 따른다”(13:3,11,12). 이렇게 하여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¹¹⁾이 사탄의 수하에 들어간다. 이들은 한 마디로 말해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11:18)이라고 불린다.

3.1.2. 땅과 음녀

땅은 음녀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다(19:2). 음녀는 이미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언급되었다. 음녀는 일반적으로 로마제국을 상징한다.¹²⁾ 음녀는 땅의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기 때문에(17:5) 땅을 가증한 것들로 채운다. “가증한 것들(βδελύγματα)”은 다니엘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에 근거하는 표현이다.¹³⁾ 이것은 아마도 온 세상의 우상 숭배가 로마에

10) Sasse, “γῆ, ἐπιγεια”, 678.

11)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아래의 논의를 참조하라.

12) 음녀의 정체에 대하여는 Böcher, *Johannesapokalypse*, 87-96에 진술된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대한 요점을 보라. 특히 그의 견해는 95f.에서 볼 수 있다.

13) 막 13:14도 같은 경우이다.

집결한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¹⁴⁾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땅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이해한다.

3.1.3. 파괴와 진노의 대상

땅에 대한 세 번째 부정적인 의미는 땅이 파괴와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일곱 인의 환상에서 둘째 생물의 호령에 따라 붉은 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6:4), 또한 넷째 생물의 호령에 따라 청황색 말 탄 자가 땅의 4분1을 죽인다(6:8). 일곱 나팔의 환상에서는 첫째 나팔을 부니 땅의 3분1이 타 버린다(8:7). 일곱 인이 개봉되기 직전에 성도의 기도를 담았던 향로가 땅에 쏟아진다(8:5). 이것은 일곱 대접의 환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언급된다(16:1-2).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을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다.

3.2. 땅의 긍정적인 성격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땅의 부정적인 성격과 함께 땅의 긍정적인 성격을 제시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설명된다.

3.2.1. “땅의 왕들(οἱ βασιλεῖς τῆς γῆς)”

요한계시록은 여덟 번 “땅의 왕들”(1:5; 6:15; 17:2,18; 18:3,9; 19:19; 21:24)을 언급한다. 여기에 “온 세상의 왕들”(16:14)이라는 용법을 더 할 수 있다. 땅의 왕들은 자주 다른 사람들과 연계된 상태에서 언급된다. 예를 들면 왕족들과 함께(6:15; 참조. 18:23), 또는 땅의 상인들과 함께 언급된다(18:3; 참조. 18:11). 일견하기에는 요한계시록이 땅의 왕들을 부정적인 면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땅의 왕들은 이런 인물들과 함께 음녀 바벨론과 음행함으로써(17:2; 18:3) 음녀에게 지배를 당하며(“땅의 왕들에게 왕권을 가진 큰 성” 17:18)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이다(19:19). 실제로 땅의 왕들은 음녀의 멸망을 슬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18:9).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땅의 왕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시다(1:5). 땅의 왕들은 마지막에 자기의 영광을

14) Bousset, *Offenbarung*, 405.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21:24). 여기에서 먼저 땅의 왕들이 누구인가를 살펴 보고 또한 땅의 왕들의 통치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본다.

(1) “땅의 왕들”의 정체

첫째로 살펴 보고자 하는 것은 “땅의 왕들”의 정체이다. 땅의 왕들은 누구인가? 로마이어는 땅의 왕들이 귀신 세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¹⁵⁾ 그는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땅의 왕들”을 요한계시록 16장 14절, 16절의 “온 세상의 왕들”과 연계성에서 이해한다. 그는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의 아마겟돈 - 그는 이것을 갈멜로 단정한다 - 은 “악한 영들의 회집 장소 (der gleichsam providentielle Versammlungsort der bösen Geister)”라고 생각하여, “온 세상의 왕들”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나오는 아르콘테스 투 아이오노스 투투(ἄρχοντες τοῦ αἰῶνος τοῦτου)와 같은 존재로 즉 “귀신 세력”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⁶⁾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땅의 왕들”도 귀신 세력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로마이어는 또한 요한계시록 17장이 전체적으로 “마귀 신화”에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요한계시록 17장 9절, 18절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해석한다. 그는 특히 “땅의 왕들”은 일곱 왕(계 17:10)과 열 왕(계 17:12)의 총합으로서, 그 숫자들은 모두 영지주의(만다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들은 별들로서 “세상의 통치자들(ἄρχοντες τοῦ κόσμου)”이다. 그러므로 “왕들”은 “본래 마귀적인 인물들의 합리적으로 이해시킨 것(eine Rationalisierung ursprünglich dämonischer Gestalten)”이거나, 좀 더 가능한 것은 “마귀적 존재들(dämonische Mächte)”이다.

하지만 로마이어의 해석에는 문제가 있다. 첫째로 그는 요한계시록을 영지주의 문서와 쉽게 연결시키는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는다. 둘째로 만일에 요한계시록이 영지주의 문서와 연결되어 있다면, 왜 요한계시록은 용어 사용에 있어서 “땅의 왕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처음부터 영지주의 문서의 용어인 아르콘테스(ἄρχοντες)를 쓰지 않고, 바실레이스

15) Lohmeyer, *Offenbarung*, 10,137.

16) 이런 주장의 가당성에 대하여는 다른 의견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고전 2:6-8에 나오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 대한 몇 가지 논문들의 목록은 나의 논문 “고전 2:6-16의 πνεῦμα와 πνευματικός”, in: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주토 최의원 박사 신학교육 40년 기념 논문집),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344, 각주 2번을 참조하라.

(βασιλεῖς)를 쓰는가 설명할 수 없다. 셋째로 같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2절의 “땅의 왕들”이나, 2절의 “땅에 거주하는 자들”과 8절의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 5절의 “땅의 음녀들”은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들을 가리키는데, 왜 18절의 “땅의 왕들”만은 영적 존재로 이해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땅의 왕들”은 지상적인 정치적 통치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¹⁷⁾ 특히 이것을 잘 입증해 주는 구절은 요한계시록 6장 15절이다. 이 구절에서 땅의 왕들은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들, 자유인들과 함께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인물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2) “땅의 왕들의 통치자(ὁ ἄρχων)”(1:5)

둘째로 살펴 보고자 하는 것은 “땅의 왕들의 통치자”(1:5)의 의미이다. “땅의 왕들의 통치자”라는 말로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구절에 기독교론적인 진술이 나온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 명칭으로 불린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며, 둘째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이며, 셋째로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다.

문맥상 이 세 가지 명칭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의 성부에 대한 세 가지 명칭(“계신 이, 계셨던 이, 오실 이”)에 병행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¹⁸⁾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들어 있는 “일곱 영들”인데, 왜 일곱 영들에게는 이와 같은 삼중적인 칭호가 사용되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

이 기독교론적인 삼중적 칭호는 칠십인역 시편 88편(마소라 시 89편)을 배경으로 한다.¹⁹⁾ “충성된 증인”은 시편 88편 38절(칠십인역)의 로 마르투스엔 우라노 피스타스(ὁ μάρτυς ἐν οὐρανῷ πιστός)를, 처음 난 자와 땅의 왕들의 통치자는 시편 88편 28절(칠십인역)의 프로토토콘 테사마이 아우톤(πρωτότοκον θήσομαι αὐτόν)과 휩셀론 파라 토이스 바실룟신 테스 게스(ὁὕηλὸν παρὰ τοῖς βασιλεῦσιν τῆς γῆς)를 암시한다. 본래 시편 88편의 내용

17) Vgl. Karrer, *Johannesoffenbarung als Brief*, 119; Bauckham, *Climax*, 242: “Since they are subject to Rome (17:18), they are not only Rome’s client kings, but all the local classes of the Roman Empire”.

18) Vgl. Kraft, *Offenbarung*, 32: “Aus formalen Gründen, wegen der Dreigliedrigkeit des Gottesnamens, sind auch dem Namen Jesu Chriti drei Prädikate beigegeben”; Lohmeyer, *Offenbarung*, 10.

19). Bousset, *Offenbarung*, 187.

들은 하나님께 관계된 말들인데, 요한은 이것을 메시아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²⁰⁾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사도신경의 제2항을 연상시키는 “작은 기독론”을 발견한다.²¹⁾ “충성된 증인”이라는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며,²²⁾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때 “땅의 왕들의 통치자”라는 표현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승귀로 이해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땅의 왕들의 통치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승귀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성부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통치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옳다.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그리스도의 승귀에 대한 암시(11:12; 12:5)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천상에서 지상 통치가 자주 언급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계 5:6,13; 7:9f. 등등). 그리스도는 땅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현재적인 통치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땅의 주님(ὁ κύριος τῆς γῆς, 11:4)”이다.

동시에 “땅의 왕들의 통치자”라는 표현은 이후에 요한계시록 17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나오는 “주들의 주, 왕들의 왕”이라는 그리스도의 칭호를 미리 예시하는 것이다.²³⁾ 물론 “주들의 주, 왕들의 왕”이라는 기독론적인 칭호는 만국에 대한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통치 사상을 넘어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승리 사상으로 연결된다. 이 구절(계 17:14)에 나오는 기독론적인 칭호는 다니엘 4장 37절(칠십인역)의 신적 칭호에 기원을 가진다.²⁴⁾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다니엘 4장에서 바벨론 왕에 대한 하나님의 존엄한 승리를 말세의 원수에 대한 그리스도의 존엄한 승리에 대한 모형론적인 예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²⁵⁾ 한 마디로 말해서 이 구절은 어린양의 절대적인 신성과 왕권을 표시한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땅의 왕들까지도 인정하게 될(계 21:24) 세상 통치권을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통치자이다.²⁶⁾ 땅의 왕들은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영광을 수입함으로써 하나님

20) Bousset, *Offenbarung*, 187.

21) Lohmeyer, *Offenbarung*, 10; Kraft, *Offenbarung*, 32f.

22) Kraft, *Offenbarung*, 32: “Mit der Zeugenschaft - “Zeuge” ist prophetischer Würdetitel - ist das prophetische Leiden untrennbar verbunden”.

23) Vgl. Bousset, *Offenbarung*, 188.

24) Mit Recht Beale, “Origin”, 618-620.

25) Beale, “Origin”, 619.

26) Karrer, *Johannesoffenbarung als Brief*, 119. 그러나 Karrer는 어떻게 땅의 왕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과 예수 그리스도께 귀속되며 종속될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결정된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세상 통치와 관련하여 어떤 면에서 이원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왕들의 통치자로서 공간적으로는 세계적인,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권세를 소유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 공동체를 위한 의미뿐만 아니라²⁷⁾ “세상, 즉 대적자들을 포함하는 인류 전체를 위한 의미(seine Bedeutung für die Welt, für die Gesamtheit der Menschen inklusive seiner Gegner)”²⁸⁾를 가진다.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권세가 돌려진다(계 5:12). 이런 이 영광과 권세는 적대자들에게도 주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요한계시록은 반이원론적인 성격을 확립시킨다.²⁹⁾

3.2.2.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

요한계시록에서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ἐπὶ τῆς γῆς)”이라는 표현이 아홉 번 나온다(3:10; 6:10; 8:13; 11:10 bis; 13:8; 14 bis; 17:8).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그(= 땅) 안에 거주하는 자들(οἱ ἐν αὐτῇ κατοικοῦντες)”이 한 번 나오며(13:12),³⁰⁾ “땅에 거주하는 자들(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τῆν γῆν)”이 한 번 나온다(17:2).

요한계시록에서 일반적으로 이 표현법들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³¹⁾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은 온 세상을 시험하는 시험에 빠질 것이다

27) 그리스도는 성도를 왕으로 삼는다 (계 5:10).

28) Karrer, *Johannesoffenbarung als Brief*, 120.

29) Gegen Satake, “Kirche und feindliche Welt”는 계시록에서 인간 세상의 이원론적인 입장을 추정하지만 잘못이다 (vgl. Karrer, *Johannesoffenbarung als Brief*, 120, Anm. 55).

30) 이것은 사실상 “땅과 그 안에 거주하는 자들” (τῆν γῆν καὶ τοὺς ἐν αὐτῇ κατοικοῦντας)에 들어 있는 표현으로 계 12:1에 나오는 “하늘과 그 안에 거주하는 자들” (οὐρανοὶ καὶ οἱ ἐν αὐτοῖς σκηνοῦντες)에 대조되는 내용이다. 참조. 13:6의 “그의 장막, 하늘에 거하는 자들”.

31) Vgl. Minear, “Cosmology”, 28: “In every case these dwellers are servants of the evil powers of the first heaven”; Satake, “Kirche und feindliche Welt”, 329, Anm. 1: “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ἐπὶ τῆς γῆς wird in der Apk als ein Terminus gebraucht, der die Gott und dementsprechend auch der Kirche feindlich gegenüberstehenden Menschen im allgemeinen bezeichnet...”. Satake는 이 용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입증한다. 첫째로 요한계시록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고려하지 않는다 (330ff.). 둘째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성도들에 대하여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 (334f.). 셋째로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는 보복이 주어진다

(3:10). 이들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한다(6:10). 이들은 세 가지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8:13). 이들은 두 증인의 원수이다(11:10). 이들은 첫째 짐승을 경배한다(13:8,14; 17:8). 또한 “땅 안에 거주하는 자들”은 둘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사주받는다(13:12).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음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다(17:2). 한 마디로 말해서 이 표현들은 “짐승의 보편적인 경배와 바벨론에 의한 땅의 보편적인 부패를 지시하기 위하여”³²⁾ 사용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시편 2편 1-9절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³³⁾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땅의 거주자들에 대하여 이러한 부정적인 입장과 함께 땅의 거주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병행시킨다.³⁴⁾ 땅의 거주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은 특히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 “땅 위에 앉은 자들(τοὺς καθημένους³⁵⁾ ἐπὶ τῆς γῆς)”³⁶⁾이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난다. 이 표현법은 짐승의 경배자들을 의미하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요구하는 영원한 복음의 청취자들을 의미한다.³⁷⁾ 이들은 영원한 복음의 대상자들이다.

요한계시록 14장 6-7절에 들어 있는 구약의 암시를 살펴 보면 영원한 복음의 대상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영원한 복음³⁸⁾을 선포하다(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 εὐαγγελίσαι³⁹⁾)”라는 구절은 시편 96편 2b절을 암시한다.⁴⁰⁾ 시편 96편은 모든 나라의 회개를 소망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요한계시록에게도 중요한 것이다. 시편 96편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335ff.). 이러한 의미에서 Satake는 요한계시록의 본론 (4-22장)에서 성도와 세상 사이에 철저한 이원론이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32) Bauckham, *Climax*, 240.

33) Bauckham, *Climax*, 241.

34) Minear, “Cosmology”, 28ff.가 땅의 거주자들에 대하여 단지 부정적인 면만을 발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는 “땅에 앉은 자들”이라는 표현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아래 논의 참조). 또는 그는 계 14:7-20에 나오는 추수를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만 이해한다 (30, 아래 논의 참조).

35) 물론 καθημένους 대신에 κατοικούντας를 취한 사본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알렉산드리아 사본).

36) 개역의 “땅에 거하는 자들”을 개역 개정은 단지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개정하였다.

37) Bauckham, *Climax*, 241.

38) Hapax legomenon.

39) εὐαγγελίσαι는 계 10:7에 한번 더 나온다.

40) Bauckham, *Climax*, 286f.

선포한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 영원한 복음의 대상자들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14:6b)이다.⁴¹⁾

요한계시록은 결국의 땅의 거주자들이 하나님의 대적자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이다.⁴²⁾ 이것은 여러 가지 내용에서 잘 입증된다. 땅의 거주자들의 회개는 첫째로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간 후에 일어난 큰 지진에서 살아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11:13)는 사실에서 입증된다. 이 남은 자들은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11:10) 중에 남은 자들이다.⁴³⁾ 여기에 “영광을 돌렸다”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언제나 긍정적인 의미이다(참조. 4:9; 14:7; 16:9; 19:7). 이 표현은 회개를 의미한다.⁴⁴⁾ “요한의 언어에 있어서 두려움, 영광 돌림, 회개는 거의 동의어이다.”⁴⁵⁾ 또한 땅의 거주자들의 회개는 일곱 나팔의 환상에서 일곱째 천사의 나팔에 이은 하늘 큰 음성에서 입증된다. “세상의 나라가 우리의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11:15). 이 노래는 분명히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을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땅의 거주자들의 회개는 요한계시록 15장 3-4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부르는 모세의 노래(어린 양의 노래)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노래에 “모든 나라들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15:4)는 내용이 있다. 하나님은 “나라들의⁴⁶⁾ 왕”(15:3)이시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의 경배를 받는다. 결국 만국이 새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의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될 것이다(21:24,26).⁴⁷⁾ 새 예루살렘에는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 잎사귀들

41) 이 사중적인 표현법은 계시록에 모두 일곱 번 나온다 (5:9; 7:9; 10:11; 11:9; 13:7; 14:6; 17:16). 이에 대한 논의는 Bauckham, *Climax*, 326-337을 참조하라.

42) Bauckham, *Climax*, 242: “Revelation’s theme is the transfer of the sovereignty of the whole world from the dragon and the beast, who presently dominate it, to God, whose universal kingdom is to come on earth”.

43) Satake는 이 구절이 예루살렘 거주자들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Allerdings handelt es sich hier um Bewohner Jerusalems” (“Kirche und feindliche Welt”, 331. Anm. 5).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다. 두 선지자가 죽임을 당한 곳이 예루살렘인 것은 맞다 (11:8!). 그러나 “남은 자들” (11:13)의 본체인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 (11:10)은 사실상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나온 사람들” (11:9)임에 주의해야 한다.

44) Satake, “Kirche und feindliche Welt”, 331, Anm. 5는 이 구절에 *metanoia*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행위는 회개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옳지 않다.

45) Caird, *Revelation*, 140. 그의 논증을 위해서는 139f.를 보라.

46) εθνῶν 대신에 P47⁸* 등은 αἰθῶν을 가지고 있다.

47) 만국의 하나님 경배와 새 예루살렘 입장은 시 86:9; 사 60:3,5,11을 배경으로 삼는다. Vgl. Bauckham, *Climax*, 241.

이 있다(22:2).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는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이 단지 부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도 여겨지고 있다.

3.2.3. 땅과 성령(요한계시록 5장 6절)

요한계시록에는 성령과 관련하여 두 가지 표현법이 나온다. 하나는 “일곱 영들(τὰ ἑπτὰ πνεύματα)”이라는 표현이며,⁴⁸⁾ 다른 하나는 “영(τὸ πνεῦμα)”이라는 표현이다. 바우캄은 일곱 영을 온 세상과 관계하는 성령의 충만을 표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영을 교회 안에서 성령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둘을 예리하게 구분한다.⁴⁹⁾ 그러나 이렇게 예리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곱 영들은 요한계시록에 모두 네 번 언급된다(1:4; 3:1; 4:5; 5:6). 일곱 영들은 무엇보다도 삼위일체적인 연계성에서 이해가 된다.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은 삼위일체의 순서를 성부 - 성령 - 성자의 순서로 설명한다(1:4).⁵⁰⁾ 성령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위치시킨 것은 성령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분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연결이다.⁵¹⁾ 따라서 성령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설명된다. 성령은 한 편으로는 성부의 보좌 앞에 존재한다(3:1; 4:5). 이러한 의미에서 성령은 “하나님의(τοῦ θεοῦ) 일곱 영들”(3:1; 4:5; 5:6)이라고 불린다. 다른 한 편으로는 성령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소유된다(3:1; 5:6). 일곱 영은 온 땅으로 보내심을 받는데(5:6, ἀπεσταλμένοι 또는 ἀπεσταλμένα),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곱 영들로 표상되는 성령은 특히 두 가지 관련 대상을 가진다. 첫째로 성령은 교회를 관련 대상으로 삼는다. 사데 교회에 편지하는 예수 그

48) “일곱 영들”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곱 천사를 의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일곱 영들이 영원한 아버지와 영화된 그리스도 사이에 위치하여 인사, 곧 사실상 축복의 인사 가운데서는 아무리 피조된 영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의 영이라고 해도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Vgl. H.B.스웨트 (Swete, 1909), 신약 속의 성령 (권호덕 역), 서울: 은성 1986, 295; Bauckham, *Climax*, 162. “일곱 영”이라는 표현은 사 11:2f.에 나오는 영에 대한 일곱 겹의 묘사에 근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gl. Kraft, *Offenbarung*, 32).

49) Bauckham, *Theology*, 109ff.

50)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비교할 때 이것은 삼위일체의 순서를 이해하는데 매우 독특한 방식이다.

51) Kraft, *Offenbarung*, 32.

리스도는 “하나님의 일곱 영들과 일곱 별들을 가지신 이”(3:1)이다. 일곱 별들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다(1:20).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성령과 교회를 소유하시는 분이다. 성령과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연결된다. 그리스도의 주권에 의하여 성령은 교회에 말씀하신다. 둘째로 성령은 세상을 관련 대상으로 삼는다. 죽임을 당한 어린양이 일곱 빨과 일곱 눈을 가지고 있다(5:6).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5:6)이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언급된 일곱 영들은 요한이 스가랴 4장 1-14절의 해석에 기초하여 선택한 성령을 위한 상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⁵²⁾ 선지자 스가랴는 환상 중에 순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그 위에는 일곱 등잔대가 있었다(스 4:2). 선지자 스가랴는 이 일곱 등잔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들이라”(스 4:10). 요한은 스가랴의 환상에 기초하여⁵³⁾ 그리스도가 가지신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5:6)이라고 설명한다. 여호와의 눈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역대하 16장 9절에서 선지자 하나니가 말한 내용에서 잘 드러난다. “여호와의 눈들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사실이다. 첫째로 여호와의 눈들은 온 세상을 포괄한다. 세상 가운데 어느 부분도 여호와의 눈들로부터 벗어날 곳이 없다. “성령은 승귀하신 그리스도와 연관하여 어린 양의 눈으로 나타나는데 이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살피시는 사역을 수행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하늘의 빛이며, 땅의 모든 곳에 존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⁵⁴⁾ 여호와의 눈들은 보편적이다. 둘째로 여호와의 눈들은 신자에게 능력적으로 역사한다. 신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눈들에게서 무시당할 자가 없다. 여호와의 눈들은 효과적이다. 바로 여기에서 일곱 눈으로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5:6)의 의미가 드러난다. 일곱 영은 세상에 두루두루 그리스도의 승리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온 땅에 보냄을 받았다.⁵⁵⁾ 일곱 영들은 온 땅에 대한 그리스도의 선교를 성취한다. 그러므로 일곱 영과 관련하여 볼 때 땅은 아주 긍정

52) Bauckham, *Theology*, 110.

53. 스 4:1-14는 요한이 세상에서의 신적 활동을 위한 성령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핵심 구약 구절이다. Vgl. Bauckham, *Climax*, 163.

54) H.W.스웨트 (Swete), *신약 속의 성령*, 297.

55) Bauckham, *Theology*, 112; *Climax*, 165.

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3.2.4. 땅과 여자

요한계시록 12장은 해를 옷입은 여자의 환상이 나온다. 이 여자는 아이를 배어 해산하려고 하는데, 용이 여자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여자는 아들을 낳은 후에 광야로 도망한다.⁵⁶⁾ 용은 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여 여자의 뒤에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 이때 “땅이 여자를 도와 땅이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12:16). 여기에 여자를 위한 땅의 도움에 관한 설명은 유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⁵⁷⁾ 사실상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땅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붉은 용이 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12:4). 사탄은 땅으로 내쫓겼다(12:9,12,13). 땅은 바다와 함께 진노의 대상이다(12:12).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의 마지막 단락에서는 땅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땅이 입을 벌려 삼키는 것은 출애굽 당시 고라 일당에게 일어났던 일을 연상시킨다(참조. 민 16:32; 신 11:6; 시 106:17). 요한계시록은 땅이 본래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의하여 노략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땅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를 낳은 여자를 돕는다.

3.2.5. 땅과 성도

요한계시록은 땅과 성도의 관계를 이중적으로 설명한다. 성도들은 땅위에서 살해를 당하여 피를 흘린다(18:24). 그런데 성도들은 땅으로부터 구원함을 얻는다(14:3). 결국 성도들은 “땅에서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5:10). 이렇게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땅은 부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

3.2.6. 땅의 추수

56. 계 12장에 나오는 해를 옷입은 여자, 여자가 낳은 아이, 광야 등에 대한 해석을 위하여는 Böcher, *Johannesapokalypse*, 68-76을 참조하라. 요한계시록은 해를 옷입은 여자로 구약 교회를, 여자가 낳은 아이로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는 것 같다.

57) Lohmeyer, *Offenbarung*, 107: “Auch der Zug von der Hilfe der Erde ist singular”.

요한계시록 14장 14-20절은 추수 절기(아마도 סוכות를 가리킨다)를 묘사하고 있다. 본문은 요엘 3장 13절(마소라본문 4:13)에 기초한다.

שלחו מגל כי בשל קציר
 באו רדו כי מלאה גת
 השיקו היקבים כי רבה רעתם

이 구절에서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추수(קציר)는 악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욘 3:11-12). 요한계시록은 요엘 선지자의 추수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한다. 땅의 추수(14:14-16)와 포도의 추수(14:17-20)이다.⁵⁸⁾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요한이 요엘 3장 13절로부터 종말론적인 추수의 두 상이한 표상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의 반복적인 표상들을 의도했느냐 아니면 종말론적인 완성의 두 상이한 측면의 표상들을 의도했느냐 하는 것이다.”⁵⁹⁾ 이 두 표상들이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지 다른 사건들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두 표상들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58) 둘째 추수가 포도 추수인 것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18절), 첫째 경우에 있어서 추수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Vgl. Jenney, *Harvest*, 305.

59) Bauckham, *Climax*, 290.

<p>땅의 추수 계 14:14-16 (개역 개정)</p>	<p>포도의 추수 계 14:17-20 (개역 개정)</p>
<p>14.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p> <p>15.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p> <p>16.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밀줄은 소문자)</p>	<p>17.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p> <p>18.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려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p> <p>19.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p> <p>20. 성 밖에서 그 틀이 밭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천육백 스타디온에 퍼졌더라</p>

이 두 표상들 가운데 나타나는 일치점과 상이점을 살펴 보자. 이 두 가지 추수 표상에는 일치하는 점들이 많이 있다. 우선 이 두 이야기의 주체가 동일하다(추수). 또한 두 이야기의 전개가 동일하다. 한 인물이 등장한다(땅의 추수에서는 “인자와 같은 이” 14절, 포도의 추수에서는 “다른 천사” 17절). 등장 인물이 가지고 있는 도구가 동일하다(낫 14절, 17절). 이어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한다(“천사” 15절, 18절). 다른 인물의 요청이 동일하다(“낫을 휘둘러 거두라” 15절, 18절). 첫째 인물의 반응이 부분적으로 동일하다(“낫을 땅에 휘둘러 거둬” 16절, 19절).

이러한 여러 가지 일치점들에도 불구하고 이 두 이야기에는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다. 첫째로 추수꾼의 정체가 상이하다.

땅의 추수에서는 “인자와 같은 이”(14)가 추수꾼이지만, 포도 추수에서는 “천사”(17)가 추수꾼이다. “인자와 같은 이”는 구름에 앉아 있다. 이것은 다니엘 7장 13-14절을 암시한다. 그는 의심할 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다(계 1:13 참조).⁶⁰ 둘째로 추수꾼의 행동이 상이하다. 땅의 추수에서는 추수꾼이 한 가지 행동만을 한다: 거둬(16). 그러나 포도 추수에서는 추수

꾼이 세 가지 행동을 한다: 거둠과 던짐과 밟음(19-20).⁶¹⁾ 셋째로 추수의 결과가 상이하다. 땅의 추수에서는 단지 거둠만이 언급된다. 거둠은 구원을 의미한다(참조. 마 13:30; 막 4:29; 요 4:35-38). 이것은 회개하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이다. 이에 비하여 포도 추수에서는 밟힘이 언급된다. 이것은 심판을 의미한다. 14장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은 이사야 63장 1-6절(계 19:15)을 암시한다.⁶²⁾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이다.⁶³⁾ 따라서 이 두 가지 표상들은 같은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설명이 아니라, 다른 사건에 대한 상이한 설명이다. 이 두 사건을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잘못이다.⁶⁴⁾ “14장 14-20절에서 요한은 역사의 완성을 두 개의 대조적인 표상들로 묘사한다 - 긍정적인 ‘땅의 곡식 추수’와 부정적인 ‘땅의 포도 추수’.”⁶⁵⁾

그러면 땅의 추수(14:14-16)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 보자. 땅의 추수가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 14장의 문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요한계시록 14장은 어린 양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구속받은 십사만 사천 명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된다(14:1-5). 십사만 사천 명은 “처음 익은 열매(ἀπαρχή)”라고 불린다(14:4). 이것은 레위기 23장 9-14절을 암시한다. 첫 열매는 본격적인 추수 이전에 추수하여 하나님께 드린 첫 단을 의미한다.⁶⁶⁾ 첫째 추수인 처음 열매 추수에는 반드시 전체 추수인 본격적인 추수가 이어진다. 그러므로 14장 4절이 첫 열매 추수를 가리킨다면 14장 14-16절은 본격적인 추수를 가리킨다. 14장 4절은 “사람들로부터(ἀπὸ τῶν ἀνθρώπων)”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려진 첫 열매를 지시한다면, 14장 14-16절은 “땅의 추수”로서 거두어지는 본격적인 곡

60) Bauckham, *Climax*, 294f. S.Sandmel, “Son of Man (Apoc. 14,14) in the Time of the Harvest”, in: *Essays in Honor of Abba Hillel Silver on the Occasion of His Seventieth Birthday*, New York 1963, 355-67.

61) Bauckham, *Climax*, 293은 포도 추수에서 추수꾼이 하는 일을 거둠 (gathering)과 밟음 (treading)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19절은 분명히 던짐 (ἐβαλεν)을 추수꾼의 행위로 돌리고 있다.

62) Bauckham, *Climax*, 290.

63) Jenney, *Harvest*, 306은 요한계시록 저자가 곡식 추수 뿐 만 아니라 포도 추수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이 추수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추수되어지는 포도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대하여 무리한 해석을 가한다 (306ff.).

64) Caird, *Revelation*, 180f., 190f.

65) Bauckham, *Climax*, 296.

66) Bauckham, *Climax*, 291.

식 추수를 가리킨다. 이것은 선민의 종말론적인 거둠을 의미하며 또한 땅에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한 보편적인 거둠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땅의 추수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둘째로 요한계시록 14장 6-11절에 두 종류의 인생들이 나온다. 요한계시록 14장 6-7절은 천사로부터 영원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언급한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고 경배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 9-11절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이 진노를 받아 불과 유황의 고난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요한계시록 14장 16-20절은 이 두 인생들의 운명을 다시 한 번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결론적인 내용이다. “14장에 대한 이중적인 결론은 천사들의 선포에 의하여 열려진 두개의 가능성에 상응한다(14:6-11).”⁶⁷⁾ 이렇게 하여 땅의 추수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며 포도 추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땅의 추수는 “교회로부터 나라들로 확장된 그리스도의 왕국”⁶⁸⁾을 제시하고 있다. 땅의 추수에서 중요한 것은 기독교이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지배를 받던 나라들을 천국으로 영접하게 된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적으로 진술한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11:15 개역개정판). 요한계시록은 땅의 추수를 말함으로써 이방 선교를 힘있게 주장하는 신약 성경의 일반적인 추세에 동승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R.Bauckham, *The Climax of Prophecy. Studies on the Book of Revelation*, Edinburgh 1993

R.Bauckham,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 (NTT), Cambridge 1993

G.K.Beale, "The Origin of the Titl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in

67) Bauckham, *Climax*, 296.

68) Bauckham, *Climax*, 295.

Revelation 17,14", *NTS* 31 (1985), 618-620

O.Böcher, *Die Johannesapokalypse* (EdF 41), Darmstadt 1988, 3. Aufl.

O.Böcher, "Die Johannes-Apokalypse in der neueren Forschung", in: *ANRW II.25.2*, Berlin/New York 1988, 3850-3893.

W.Bousset, *Die Offenbarung Johannis* (KEK 16), Göttingen 1906, 6. Aufl. (ND 1966)

G.B.Caird, *The Revelation of St. John the Divine* (BNTC), 2nd Ed., London 1984

E.Dinkler, "Weltbild. III. Im NT", *RGG* (3. Aufl.), 1618-1621

T.P.Jenney, *The Harvest of the Earth. The Feast of Sukkoth in the Book of Revelation*, Diss. 1993

M.Karrer, *Die Johannesoffenbarung als Brief. Studien zu ihrem literarischen, historischen und theologischen Ort* (FRLANT 140), Göttingen 1986

H.Kraft, *Die Offenbarung des Johannes* (HNT 16a), Tübingen 1974

E.Lohmeyer, *Die Offenbarung des Johannes* (HNT 16), 3. Aufl., Tübingen 1970

P.S.Minar, "The Cosmology of the Apocalypse", in: W.Klassen (ed.), *Current Issues in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FS O.A.Piper), New York, 1962

S.Sandmel, "Son of Man (Apoc. 14,14) in the Time of the Harvest", in: *Essays in Honor of Abba Hillel Silver on the Occasion of His Seventieth Birthday*, New York 1963, 355-67

H.Sasse, "ἄνθρωπος, ἐπιτελεος", *TWNT* 1, 676-680

A.Satake, "Kirche und feindliche Welt. Zur dualistischen Auffassung der Menschenwelt in der Johannesapokalypse", in: *Kirche* (FS G.Bornkamm), Tübingen 1980, 329-349

E.Stauffer, "Das theologische Weltbild der Apokalyptik", *ZStH* 8 (1930), 203-215

H.B.스웨트(Swete), 「신약 속의 성령」(서울: 은성, 1986)